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푸르게 일렁이는 하늘

이 시 연

즈믄 해를 씻어내며 다스려온
절절한 그리움의 표상이었으리라
순수의 기원을 피워
정끌 한 번 내려쪼을 적마다
아승지겁을 향한 불꽃 튀는 사랑을
그토록 오롯하게 새겼으리라

지리산 천왕봉 마주하여 서 있는
백장암 돌탑을 돌고 또 돌면
묵묵히 도량을 지키는 신장들과
잔잔하게 풍악을 연주하는 하늘사람과
온유한 보살님과 늠름한 천왕들이랑
우리 서원은 하나 되어 어우러지고

소졸한 듯 우아하게
담백한 듯 눈부시게
그리하여 산골 가득 차오르는
노래와 춤으로 당초무늬에 새긴 사랑이여

돌탑 앞에 두 손을 모으면
석수장이 눈빛 뜨겁게 타오르고
지붕돌에 핀 연꽃들 송이 버는데

한 천년쯤 다시
간절한 염원을 사르고 또 사르면
덕지덕지 낀 번뇌를 지우고 또 지우면
저 탑 꼭대기 보개 위에 올라
사랑 일렁이는 하늘 우러르지 않으려나.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시연 시인은… 1946년 전북 임실 출생. 1982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금시내 안마을에 부는 사람〉, 〈참 좋은 날〉 등.

조계종,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자승 스님, 사면 청원 이어 용산참사 대책위 방문 '위로'
화쟁위, 한진 重 희망버스 구속 사법처리 중단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우측 가운데)이 용산 참사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조계종이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희망버스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도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재판 중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도 불구속 기소 중이다. 이 밖에도 희망버스 관련자 4명이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화쟁위원회는 2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한진중공업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화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적자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노동자 가장들이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사법적 조처만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화쟁위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면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고 이미 이뤄놓은 사회적 발전도 물거품이 된다. 가장 커다란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에 두고 집행돼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사법 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멈추고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길 바란다. 희망버스 불교계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특별사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최근 청와대에 용산사태 관계자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했으며 청원서 전달에 앞서 구속된 철거민을 위한 위로 편지와 영치금, 책, 단주를 전달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9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용산참사 대책위(공동대표 조희주) 사무실을 방문해 10여명의 유가족 및 관계자들을 만났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조계종이 청와대에 청원한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조희주 공동대표는 "사면을 청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3월 1일에 구속자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자승 스님이 전달한 편지와 영치금을 잘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지도자 모임 등에서도 함께 노력해 청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용산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도 "사회통합위원회에도 강력히 요구했으며, 대통령에게 심각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대책위는 이날 자승 스님에게 용산관련 서적 4권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도 대책위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범어사 3월 25일 주지선출키로

중앙선관위 · 교구선관위 연석회의서 합의

조계종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관위는 교구선관위와 함께 제249차 회의를 2월 7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교구 선관위는 4월 7일 現 주지 스님 임기 만료 전에 범어사 후임 주지가 선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결과 중앙선관위와 교구 선관위는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를 3월 25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구선관위는 3월 2일 예정인 산중총회를 취소하고 3월 25일 산중총회를 개회할 것을 결의 후 중앙선관위에 보고키로 했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노스님 입원치료비 첫 지급

승려복지법 의거 태화 스님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

승려노후복지 제도 시행 후 첫 입원치료비 수혜자가 나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영담 · 총무원 총무부장)는 지난해 12월 입원치료비를 신청한 태화 스님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했다. 태화 스님은 법납 48년, 세납 83세로 해인사 산내암자인 삼선암 반야선원에서 동안거 결재 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승려복지제도에 의거 입원치료비를 신청했다.

이에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스님의 진료비 523만원 가운데 의료보험관리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226만원의 50%인 113만원을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차기주지 합의 추대 무산

24일 차기회의서 주지후보 재조정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의 차기 주지 선출이 합의 추대되려다 무산됐다.

법주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설조)는 2월 8일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 선출의 건을 논의했다.

차기 주지 예비 후보로는 노현 스님(現 주지), 현조 스님(前 국제선센터 주지), 성일 스님(대원사 회주) 등이 1월 11일 등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예비 후보스님들은 정견 발표 후 스님들은 단일후보 조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법주사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주지후보 단일화를 재시도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이웃 종단으로는 최초 "논산군법당 위해"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 사진 오른쪽)이 이웃 종단 최초로 조계종에 기금을 전달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 사진 가운데)에 논산 군법당 건립기금 1000만 원을 2월 8일 기탁했다. 홍파 스님은 "종단협 신년총회 때 다른 종단의 후원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0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예불. 도량석. 종성.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과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오후 1시 ~ 오후 3시 / 범패 소리과정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3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